

제4차 Pacificchem 2000

● 일시 : 2000년 12월 14일~19일 ● 장소 : 미국 하와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하와이 오후섬에서 제4차 Pacificchem 2000(2000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이 개최되었다. 하와이에서만 개최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국제 화학인대회인 이번 대회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태평양 연안의 20개국의 화학회가 공식적인 참가학회이었으나 실제로는 세계 58개국 소속 화학인이 참가하였다.

한국서 2백여명 참가

이 대회에서는 농업, 분석, 환경, 무기, 고분자, 의약, 유기, 물리 등 10개 분야에서 1백80개의 심포지엄이 6개 이상의 와이키키 해변가에 위치한 전망 좋은 특급 호텔에서 분산되어 진행되었다.

필자도 유기광화학(photochemistry) 분야의 한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를 의뢰받아 이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추위가 맹위를 떨치기 시



尹景炳
(서강대 화학과 교수)

작한 12월의 한국을 뒤로 하고 약 7시간 반 정도의 비교적 견딜만한 시간의 비행 끝에 오후섬에 도착하니 그곳의 기온은 영상 28도. 오후 2시경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와이키키 리포트 호텔에 여장을 풀고 와이키키 해변에 나가보니 한 낮의 백사장에는 금발의 미녀들이 8등신 각선미를 뽐내며 이곳저곳에서 한가롭게 싱그러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깨끗한 공기와 푸른 바다, 아늑한 백사장, 살랑살랑 피부를 간질이듯 불어오는 싱그러운 해풍에 수줍게 흐느적거리는 팜트리 잎새들, 그리고 저 멀리 잡힐 듯 아련한 수평선, 연중 변화가 거의 없는 살기 좋은 온도..., 누군

가가 하와이를 천당 바로 밑에 있는 999당이라고 비유하였다던데 과연 그 말이 실감나는 것 같았다.

이 대회에 무려 3백여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비록 동반 가족을 제외하면 순수한 학회 참석자는 2백여명 정도로 추정되었지만 어찌되었건 근래에 들어 외국에서 개최된 학회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참여한 적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듯 싶었다. 1995년에 개최된 제3차 대회 때 참석한 우리나라 사람 수는 불과 30여명이었다고 하니 5년만에 꽤 많이 증가한 편이다. BK21사업이 그 이유라고 들린다.

이 사업은 현재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대학원생들에게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가하도록 경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을 넓혀서 미래에 우리나라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세계 58개국의 화학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회의인
제4차 Pacifichem 2000이 지난 12월 하와이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만 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필자는 유기광화학분야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총 논문은 8천3백61편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백33편으로 일본의 4천4백90편에 비해
너무 뒤져있음을 실감하고 돌아왔다.

발표논문 총 8천여편

총 발표된 논문 8천3백61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화학인들이 발표한 논문 수는 2백33편으로 고작 2.8%인데 반해 일본 화학인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 수는 4천4백90편으로 전체의 53.7%에 달한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 남한인구의 2.68배에 달하고 1인당 GNP가 우리의 2.76배에 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구나 GNP 인자를 고려한 값은 $2.68 \times 2.76 = \sim 7.4$ 가 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일본은 우리의 7~8배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정상일 것 같다. 그러나 수치는 19.3배가 나온다. 우리가 너무 뒤쳐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앞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일본의 화학 수준은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 가고 있었다.

日 화학회원수 한국보다 7배

이처럼 1회에 그것도 해외에서 4천5백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일본 화학회의 저력은 우리 화학회의 기(氣)를 꺾

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와이의 공용어가 영어와 일본어이고 또 이곳 재산의 반을 일본인들이 소유한 것처럼 'Pacifichem 2000'은 실제로 일본 화학인들이 주도하고 장악한 학회였다. 수많은 일본의 기업체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한 대회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발표 내용의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와 일본의 화학 수준의 차는 더욱 벌어짐을 느꼈다. 수많은 일본의 단장들은 물론이고 머리가 하얗게 변색된 일반 교수들이 마치 신내린 무당이 춤을 추듯 자신들의 연구에 도취되어 토해내는 연구내용들은 기실 그 분야 최첨단 프론티어 연구분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측 참가자들이 다루는 내용의 전체적인 심도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았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라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국 과학기술이 지식의 근간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서서 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서의 수준 차이는 곧 국력의 차이와 직결될 것이다.

양국의 화학회 회원 수를 비교하여도 우리의 사회가 뭔가를 잘못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화학회 회원수는 3만7천5백8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5천14명(국내의 다른 학회와는 달리 대한 화학회도 일본화학회나 미국화학회와 같이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잡는다)으로 일본 화학회 회원수의 7.5분의 1에 해당된다.

이 비율로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우리 보다 인구비례로 약 3배 이상 더 많은 화학회 회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기초과학 연구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학부제가 시행된 이후 상위권대학에서의 화학·물리전공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초과학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앞날이 더 걱정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노을이 곱게 물드는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거닐며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보았던 학술대회이었다. ㉞